

비교이론에 근거한 은유해석 방법

조혜경

호서대학교

goodseda@hanmail.net

요약

This paper is to identify how to interpret metaphorical expressions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Theory. The metaphor is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various aspects of language. There are three important conventional theories that are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metaphor: substitution, interaction and comparison theory. This paper attempts to interpret several metaphors representative of the seven paths. we can conclude that the seven paths of metaphor interpretation can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types metaphor expressions with more precision and they can convey the meaning of a metaphor according to the speaker's intention.

1. 서론

은유(metaphor)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한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비유법을 말한다. 이러한 은유는 일상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고 표현할 때 흔히 은유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은유에 대해 예로부터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수사학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언어학적 입장에서 본 연구는 근래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언어를 고찰함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은유 표현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비교이론에 근거한 은유의 해석방법을 규명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비교이론에서 보는 은유는 그 구조가 'A는 B이다'의 형태인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은 직유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직유(simile)의 형태는 'A는 B와 같다'인데, 이 형태에서 직유임을 표시하는 명시적 어휘인 '...와 같다(like)'를 뺀 것이 은유로 인식된다. 이때, A는 화제어¹(topic-term; 이하 T-term)이고, B는 매개어(vehicle-term; 이하V-term)가

¹ 화제어(topic-term)를 주의(tenor)라고도 부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화제어'로 통일한다.

된다. 다시 말해서 은유는 매개어인 B를 써서 화제인 A를 설명 내지는 전달하려는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 여기서 화제어는 화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화제는 매개어를 통해 화자가 의도하는 개념이나 실체를 말한다.

한편, 은유는 환유(metonymy)와 구별되는 데 전자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비유인데 반하여, 후자는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king을 나타내기 위해 crown을 쓰는 것은 환유의 한 예인데, 이는 왕과 인접해 있는 물건을 써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사성을 근거로 은유와 풍자(irony)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풍자는 두 사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는 경우의 수사법이다.

전통적인 주요 은유 해석 이론으로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비교 이론은 그중 한 가지이고, 나머지 두 이론은 대치 이론과 상호 작용 이론이다. 비교이론이라 함은 은유 해석의 한 이론이며, 은유 표현에 나타내는 두 사물의 개념이 유사성을 기반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대치 이론은 Aristotle 이래 지배적인 이론이었고, 상호 작용 이론은 Richards(1936) 이래 지금까지 호응을 받는 이론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비교이론을 분석의 기본 틀로 선택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 직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 사물이나 사상 사이에 일말의 유사성이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의 언어는 이들을 관련지어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아닌 은유인 것이다. 약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많은 장점도 있다. 큰 장점으로는 대치 이론과 상호 작용 이론이 다양한 은유 가운데 일부만을 설명 할 수 있는데 반해, 비교 이론은 다양한 은유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비교이론에 근거하여 은유 해석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부분적인 해석에 그쳤던 은유해석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명료하게 하고자 한다. 이로써 은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의미론과 화용론에서 부분적으로 부분하게 이루어지는 논의들을 통합 정리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은유의 정의를 논의하고, 제 3장은 은유의 전통적인 해석이론을 정리하고 비교이론을 채택하여 은유해석의 근거로 삼을 것을 밝힌다. 제 4장에서는 비교이론에 근거한 은유해석 방법을 모색하면서 지시적 해석과 결합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7가지 은유해석 경로를 제시한다. 제 5장은 10여 개의 다양한 은유를 비교 이론에 근거한 해석방법을 써서 실제 해석해 보고 모든 은유의 해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제 6장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한다.

2. 은유의 정의

본 장에서는 은유에 관한 다양한 정의와 논의 가운데에서 Goatly(1997)의 정의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ristotle은 그의 Poetics에서 은유란 한 사물에 대하여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 이후에 Richards(1936)는 은유란 두 사물을 나타내

는 낱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Grice는 은유란 질의 격률²(maxim of quality)이 위배될 때 얻어지는 발언으로 취급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견해와 시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은유를 정의하였지만, Goatly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정의는 다음 (1)과 같다:

- (42) Metaphor occurs when a unit of discourse is used to refer unconventionally to an object, process or concept, or colligates in an unconventional way. And when this unconventional act of reference or colligation is understood on the basis of similarity, matching or analogy involving the conventional referent or colligates of the unit and the actual unconventional referent or colligates. (Goatly 1997: 8)

(1)에서는 은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적함으로써 은유를 정의하고 있다. 즉, 담화 표현이 구체물, 개념 혹은 과정을 비정상적³으로 지시하는 경우에 은유가 발생하고, 또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경우에 은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시 또는 결합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유사성(similarity)과 유추(analogy)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될 수 있을 때 은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결합이란 통사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은유는 비정상적인 지시와 비정상적인 결합이 동시에 일어나 발생되지만 어떤 은유는 비정상적인 지시에만 국한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위 정의에서 “the conventional referent of the unit”는 담화 표현의 정상적 지시물로서 매개체가 되고, “the actual unconventional referent”는 실제 비정상적 지시물로서 화제가 되며, 유사성 혹은 유추는 은유 표현 성립의 근거(grounds)⁴가 된다. 예를 통해 위 용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43)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they do things differently there.

*foreign country*의 개념은 매개체이고, *the past*의 개념은 화제이며 근거가 되는 유사성은, 과거는 외국처럼, 행동양식이나 사태가 전혀 다르게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들과 그들을 표현하는 언어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언어 표현들을 각각 매개어(V-term), 화제어(T-term), 근거표현(G-term)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 예에서 보면 매개어는 *foreign country*이고, 화제어는 *the past*이며 근거 표현은 *they do things differently*이다. 표기상 매개어는 진한 글자로 표시하고, 화제어는 밑줄로 표시하며, 근거표현은 이탤릭체로 표시할 것이다.

매개어의 비정상적인 지시물인 화제는 다음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구체물, 성질, 과정, 개념, 관계 등이다. 이들을 망라하기 위한 용어로서 실체(entity)라는 용어를 사용

² 질의 격률은 대화협력을 위해 화자가 거짓말을 않고 참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³ '비정상적'이란 용어는 필자가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비약정적(unconventional)'이란 용어와 같음을 밝혀둔다.

⁴ 근거는 유사성 혹은 유추로서 구성되며, 적절한 상황에서 지각될 수 있다. 근거는 활성적 은유의 경우에도 지각될 수 있으나, 매우 맥락 의존적이어서, 예측할 수는 없다.

한다. 가령, '구체물'은 1차순 실체(first-order entity)이며, 공간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은 2차순 실체(second-order entity)로서 공간에서 존재를 가지는 것보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실체를 가리킨다. '개념'은 3차순 실체(third-order entity)이거나 그 이상의 실체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은유표현을 해석할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은유해석 이론을 논의하기로 한다.

3. 전통적인 은유해석 이론

앞장에서 필자는 은유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통적인 은유해석 이론을 살펴보고 각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은유의 관심은 Aristotle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1세기초 Richards(1936)가 은유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은유에 대한 연구가 정립되었다(이진옥 2000). 전통적 은유해석 이론을 분석 정리한 Black(1962, 1979)에 이르러서, 은유에 대한 이론을 대치이론으로 구별하면서 은유에 대한 연구는 큰 전환을 이룬다. 전통적인 은유 해석이론들인 대치이론, 상호작용론, 그리고 비교이론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대치이론(Substitution Theory)

대치이론은 은유표현(metaphorical expression)이 문자적 표현(literal expression)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견해로 'A is B'의 형태는 'A is C'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은유의 의미가 문자적 표현의 대용물로 설명될 수 있고 은유는 일종의 장식적 표현 장치로 볼 수 있다(Black 1962: 224-5). 다음 예문을 통해 어떻게 대치이론이 설명되는가 살펴보자.

- (44) a. Black is a rat.
b. Black is a disloyal person.
- (45) a. The chairman ploughed through the discussion.
b. The chairman dealt summarily with objections, or ruthlessly suppressed irrelevance.

예문 (3a)의 *rat*는 (3b)의 *disloyal person*으로 대체되며,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설명된다. 예문 (4a)의 경우 회의에서 의장이 토론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4b)처럼 의장이 반대 의견을 요약해서 처리하거나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가차없이 제재했다는 의미로 대체된다. 이 관점에서 화자는 문자적 표현을 은유표현으로 대체시키지만, 은유표현을 문자적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은 청자의 몫이다. 그래서 대치론적 의미에서 은유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암호를 해독하거나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다고 한다(이진옥 2000). 왜 화자가 이런 수수께끼를 청자로 하여금 풀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첫째, 화자의 의도를 문자 그대로

고에 만연한 사고의 원리이다. 둘째, 은유는 일상적인 언어에서 일탈된 표현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담화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즉 개념적인 체계가 은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은유표현은 개념체계의 구현인 언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은유적 사고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사는 세계는 투영된 세계이고 언어에서 은유의 과정, 즉 단어의 의미 사이의 변화는 이미 인지된 세계에 겹쳐서 놓여진다. 넷째, 은유는 다른 사물에 대한 두 사고가 함께 활동하여 단일한 단어나 구에 의해 사용된다. 은유의 의미는 두 사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빚어진 의미이다. 예문으로 그의 견해를 살펴보자.

(48) John is a rock.

예문 (7)에서, *John*은 화제(topic), 즉 내재된 생각으로 *John*의 성격을 가리키고, 매체(vehicle), 즉 그 내재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figure)은 바위가 된다. *John*의 성격과 바위가 함께 작용하여 은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섯째, 은유는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으며 종종 유사성보다는 사물사이의 상이성에 더 근거를 두며, 의미는 맥락의 특별한 상호작용의 산물이므로 문자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Richards의 견해는 은유를 개념체계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사물 사이의 상이성을 지적하고, 화제와 매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관점은 Black(1962, 1979)에 의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전형적인 예문 (8)을 살펴보기로 하자.

(49) Man is a wolf.

예문 (8)은 두 주어(subject)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주주어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적 주어⁵이다. 주주어는 *man*이고 부가적 주어는 *wolf*이다. 은유적으로 *man*을 *wolf*로 부르는 것은 관련된 *wolf*의 성격 체계를 불러 일으킨다. 즉 단어의 수준을 넘어 그 단어와 연합된 지식과 가정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청자는 *wolf*의 성격 체계에 의해 *man*에 대한 상응하는 일반적 성격 체계를 구성하고,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wolf*의 일반적으로 사납고, 항상 투쟁하고 위험하다는 속성으로 *man*의 속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부가적 주어의 영역이나 체계의 연합된 내포가 주주어의 체계에 전이되고, 부가적 주어가 주주어의 특징을 선택, 강조, 억제, 조직한다.

Black(1979)에서의 두 주어, 주주어와 부가적 주어는 일차적 주어와 이차적 주어로 수정되고, 일반적 성격 체계는 함축의 복합체로 용어가 바뀐다. 두 주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그 작용 기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차적 주어의 존재는 1) 청자를 자극하여 특정한 이차적 주어의 속성을 선택하게 만들고, 2) 청자가 일차적 주어에 맞는 함축의 복합체를 구성하게 하며, 3) 이차적 주어에도 동등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다음 예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⁵ 부가적 주어(secondary subject)는 주주어(primary subject)와 대조되는 용어로서 각각 이미 설명한 매개어와 화제어의 또 다른 이름이다.

(50) Marriage is a **zero-sum game**.

예문 (9)에서 *marriage*는 청자로 하여금 *game*의 속성 중 다음과 같은 함축의 복합체를 선택하게 한다.

- (51) a. A game is a contest;
 b. between two opponents;
 c. which one player can win only at the expense of the other.

*game*은 *contest*, *opponent*, *win*으로 묘사된다. 이에 상응하는 *marriage*의 함축의 복합체는 다음과 같다.

- (52) a. A marriage is a sustained struggle;
 b. between two contestants;
 c. in which the rewards of one contestant are gained only at the other's expense.

*marriage*는 *game*의 경쟁적인 측면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은유의 이차적 주어에 의해 지지되는 모든 함축의 복합체는 일차적 주어에 도입된 모형이다. (10a)와 (11a)는 각각 두 주어가 경쟁이나 투쟁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10b)와 (11b)는 경쟁이나 투쟁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며, (10c)와 (11c)는 두 주어의 체계 내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은유표현은 두 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단어의 연합된 함축 체계가 상호작용하여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문 (11)에서 *marriage*의 경쟁적인 측면은 은유이전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의미이다.

상호작용이론은 은유표현이 새롭고 놀라운 것이며, 문자적으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한다. 은유는 관련 단어와 연합된 전체적인 가정과 공통체계를 포함한다. 은유는 일차적 주어와 이차적 주어의 상호작용으로, 이차적 주어의 연합된 관념을 숨기고, 일차적 주어의 측면을 강조하고 조직한다. 또한 은유의 이해는 의미의 변화를 포함하고,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한다. 상호작용이론은 비교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비판의 핵심은 비교론이 지나치게 유사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유는 기존의 유사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유사하지 않은 두 관념간의 유사성을 창조한다고 본다. 그래서 은유는 비교되는 문자적 표현으로 바꿀 수 없고, 은유이해 이전에는 두 주어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생략된 직유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호작용이론은 은유를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체계에 관련됨을 지적하여 은유 이론에 큰 발전을 가져왔으나, 의미 변화의 기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공통지식의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며 다른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두 주어 사이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문장에서 두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의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상호 작용이론은 활성화적 은유를 다루는 데는 기여하는 것 같이 보이나 유추와 관련되는 은유해석의 국면들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술어 은유는 대부분 유추관계를 기반으로 성립된 은유인데 설명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 이론은 명사 은유만을 일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상호작용 이론의 문제점을 더 거론할 수 있다. 상호작용 이론은 유추의 중요성과 매개체 구문⁶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상호작용성이 언어에 광범위한 현상인지가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Black(1962)의 예문, *A battle is a game of chess*, 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chess*라는 것이 애당초 *war*의 모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chess*가 *battle*과 같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지 원래부터 상호작용 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호작용 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이 긴장이론(Tension Theory)이다(Goatly1997: 117). 그것은 은유의 주요 기능이 의미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및 논리적 긴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은유가 자신의 인지적 내용을 비긴장 진술로 축소시키게 되면 더 이상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Berggren1962: 244). 하지만 모순과 긴장의 주된 영향을 그 해석과 구분할 수 있고, 그 해석을 위해 비교이론은 가장 만족할 만한 설명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치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작용이론의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해 수정된 비교이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3.3. 비교이론 (Comparison Theory)

비교이론은 은유표현이 두 사물의 유사성을 기초로 한다는 입장이다. 'A is B'의 형태인 은유가 성립하려면, A와 B에 유사성이나 유추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은유의 의미는 일단 청자가 의도된 유추나 유사성의 근거를 파악하면 화자의 의도에 따라 원래의 문자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은유를 '유추'와 '유사성'에 따라 설명하려는 관점이 비교론이다(이진옥 2000: 5).

다음 Black의 예문은 비교론을 명확히 설명한다.

- (53) a. Richard is a lion.
b. Richard is like a lion.

(12a)의 은유표현은 (12b)와 같은 것으로 직유와 은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유가 직유에서 *like, as*가 생략된 형태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론은 은유에 대하여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상적인 언어의 사용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보고 있고, 두 사물의 유사성에 근거를 두어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략된 직유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⁶ 매개체와 정상적 지시물과의 결합된 구문을 이른다. 가령, 매개체인 stampede와 같은 동사는 그 목적어로서 항상 가축이나, 소, 말등을 목적어로 삼고 있어서 stampede cows의 구문이 가능하다. 이 구문을 매개체 구문이라 한다. 이 경우 cows는 정상적 지시물이 된다.

Henle(1958)도 마찬가지로 은유에 대한 비교론적 관점을 나타내는 한 예이다. 그에 따르면 은유는 하나의 기호(sign)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에는 이중성, 즉 문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가 있다. 은유표현에서 단어의 비유적 의미는 다른 단어의 문자적 의미로 바꾸어질 수 있다. 이는 은유표현이 이에 대한 다른 단어의 문자적 표현과 같음을 의미한다. 은유의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호와 지시된 사물 사이의 직접적이고 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와, 기호와 지시된 사물 사이에 직접적인 유사성은 없으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은유와 직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은유는 압축된 직유'라는 관점에 동의함을 밝히고 있다 (Henle 1958: 91).

그러나 이 말은 직유가 그 상응되는 은유와 똑같은 종류의 기능이나 단언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해석상으로 직유와 은유는 상응될 것이라는 뜻일 뿐이다. 왜냐하면 직유 즉, 명시적 비교는 은유 해석을 지정하는 여러 방식중 한 방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Miller(1979: 202-250)도 비교론을 지지하여 은유를 통각(apperception)적 난제로 보며, 또한 은유의 특성을 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일부분이 생략된 비교진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유에서 생략된 비교를 명시하는 것이 청자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가 된다. 그리하여 Miller는 은유의 기저를 이루는 여러 방식들을 기저의 비교 진술문으로 재구성하여 세 가지의 심리학적 비교모형을 제시하였다.

Miller(1979: 213)는 은유를 통각(apperception)에 장애를 주는 문제로 본다. 실제 세계에서는 문자적으로 거짓이 되는 은유는 여전히 우리의 심상(image)에 추가되어 우리의 의미모델을 제한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그 은유는 실제세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화자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간에 긴장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실제세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문장개념을 실제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것으로 종합하기를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자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세계를 가능한 한 많은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세계와 유사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실제로 x는 y가 아님을 알고 있는 데도 화자가 x는 y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x가 y인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실제세계에서 x가 y와 어떤 면에서 같다면, 이러한 상상의 행위는 용이해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 우리는 그것들의 유사성들을 x는 y라고 말한데 대한 화자의 근거들(grounds)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자가 *Man is a wolf*라고 말한다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인간들에 늑대들의 속성들을 부여함으로써 진리 가정(assumption of truth)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화자가

(54) Typhoons are **wheat**.

라고 말한다면, 이 진술이 참이 되는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고 동시에 그 모형과 실제

세계간의 유사성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13)은 앞서 말한 *Man is a wolf* 보다 통각적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x 와 y 간의 유사성은 우리의 문장 개념과 우리의 실제 개념간의 긴장을 최소화해 주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비교이론은 상호작용 이론의 지지자들에 의해 대치이론의 수정된 이론으로 치부되었으나, 필자는 Mooij(1976: 171)와 Goatly(1997: 118)를 따라 상호작용 이론과 비교이론은 양립할 수 있다고 믿고, 본 논문에서 비교이론을 사용하기로 한다. 사실, 상호작용 이론이 화제에 사용되는 매개체의 자질 선택을 언급한다는 것은 비교의 과정을 말하는 것과 같다. 수정된 비교이론의 장점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은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제 5장에서 확인될 것이다.

한편, 비교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유사성의 개념과 유추의 개념을 더 심도 있게 살펴 보기로 한다. 이 두 개념들은 은유를 풍자(irony)와 같은 기타 수사법과 구별하는 기초로서 쓰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에서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으며(Searle 1993), 은유와 직유에 관한 심리학적 실험에서 많은 연구를 자극하였다(Ortony *et. al* 1978).

먼저 유사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유사성을 Tversky(1977)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55) \quad S(a, b) = \theta f(A \cap B) - \alpha f(A - B) - \beta f(B - A)$$

실체 a 와 b 의 유사성 S 는 a 와 b 에 의해 공유된 자질인 ($A \cap B$)와 그들 자질에 부여되는 비중 및 강조를 나타내는 (θf)의 함수이다. 단, a 는 가지고 있으나 b 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질인 ($A - B$)와 그들에게 부여되는 비중을 나타내는 (αf)의 함수를 빼고, b 는 가지고 있으나 a 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질들인 ($B - A$)와 그들에게 부여되는 비중인 (βf)의 함수를 뺀 것이다. 척도 f 는 유사성이나 대조에 부여되는 비중, 특별강조, 그리고 현저성을 나타낸다. 결국 요약하면, 유사성이란 어떤 자질들의 공유를 말한다. 위 (14)공식이 어떻게 문자적 의미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처음 알게된 단어 *armchair*를 기존의 *chair*로서 정상적으로 지시하게 될 때, 개념 a 의 중요 자질들을 새로 보게된 구체물 b 에 관련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Tversky공식을 적용할 때 다음 (15)의 등식이 성립한다:

$$(56) \quad \begin{aligned} \text{a. } & A \cap B = A \\ \text{b. } & A - B = 0 \\ \text{c. } & B - A = (\text{with arms/ caster/ upholstered/ coffee-stained/ etc}) \end{aligned}$$

한편, 풍자(irony)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풍자는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57) \quad \begin{aligned} \text{a. } & A \cap B = 0 \\ \text{b. } & A - B = A \end{aligned}$$

c. $B - A = B$

다음으로 유추(analogy)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어떤 은유들은 그 해석 근거로서 유추를 필요로 한다.

(58) The hydrogen atom is a **miniature solar system**. (Gentner 1982: 111-13)

산소 원자와 태양계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유추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은유를 해석할 때의 근거는 전적으로 이들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성에 의존한다. 그 관계성은 다음과 같다: 태양은 흑성보다 비중이 더 크고, 원자핵은 전자보다 비중이 더 크다. 또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흑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 등치(relational equivalence) 개념이 유추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18)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59) The earth and the biosphere around it is like a **giant redwood tree**. (Goatly 1997: 123)

나뭇잎을 포함한 나무의 살아 있는 표피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거의 죽은 나무 덩치와의 관계는 지구의 생물권과 지구전체의 대부분을 이루는 흙이나 광물사이의 관계와 같다. 이 유추는 획기적인 생태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비교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지주로서의 유사성과 유추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은유의 근거가 유사성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유추에 의존하는가는 은유의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은유해석의 전통적인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본 논문은 직유 또는 비교가 생략된 것이 은유라고 보는 비교이론이 유사성과 유추의 개념으로 관련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 장에서는 은유의 해석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비교이론을 근거한 은유해석 방법

지금까지 전통적 은유 해석 이론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 비교이론의 선택이유를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비교이론을 바탕으로 은유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은유해석의 두 가지 방법을 상술하고, 네 가지 관련요소를 고려한 은유 해석의 경로를 제시하겠다.

4.1. 지시적 및 결합적 해석

은유해석은 지시적 해석(referential interpretation)과 결합적 해석(colligational interpretation)이 있다. 지시적 해석은 매개어가 화제어를 비정상적으로 지시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은유를 해석할 때의 관점이다. 반면에 결합적 해석은 매개어가 화제어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은유를 해석할 때의 관점이다. 지시적 해석에 관해 예를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60) You are a rat.

(19)에서 사람인 *you*에 동물인 *rat*을 비정상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은유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은유가 겨냥하는 의미는 지시적 해석으로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합적 해석에 관하여 예문을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61) Winds **stampeding** the fields. (Goatly 1997: 111)

예문 (20)에서 매개어 *stampeding*은 술어 은유이다. 그것은 확장된 화제어인 *the fields*와 비정상적으로 결합되었다. 이 은유의 의미를 알려면 *stampeding*을 위한 정상적 결합어인 *cows/horses*를 찾아내고, 실제 지시물의 한 용어인 *blowing over*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blowing over*는 *stampeding*의 화제어(T-term)이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62) T-terms: Wind [blowing over] the fields
V-terms: stampeding [cows/horses]

이 은유 표현의 근거(grounds)는 들녘에 불고있는 바람의 효력과 우르르 도망치는 가축들의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혹은 유추를 추구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추추컨대, 작물의 흔들거림이 마치 가축들의 뛰어오르는 모습 아니면 가축들의 갈기의 날리는 모습과 유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결합어를 찾아내는 것에 의존하는 해석이 결합적 해석이며, 정상적인 결합의 구문을 매개어 구문(vehicle-construction)이라 부른다(Reinhart 1976). 대부분의 은유는 지시가 비정상이고 결합이 비정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은유는 지시의 비정상에만 국한되는 것도 있다.

다음 (22)은 그러한 예문이다.

(63) Singapore is **an island** of efficiency and cleanliness in South-east Asia.

예문 (22)에서 *island*가 문자적 또는 은유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단지 비정상적 지시에서 오는 것이지 비정상적 결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23)에서도 *the suitcase*는 *the boulder*를 의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결합의 비정상은 아님이 분명하다.

(64) He put his back against **the suitcase**. (Goatly 1997: 112)

비정상성은 일차적으로 그 지시에 국한되고 있다.

요컨대, 은유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첫째, 정상적 결합어를 찾아내고, 둘째, 실제 지시물을 위한 용어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유해석에는 지시적 해석과 결합적 해석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은유해석을 위해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두 가지 비정상성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4.2. 은유해석의 경로

비정상성의 기준에 따라 은유표현은 지시적 해석과 결합적 해석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은유 해석을 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두 해석이 모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해석만이 해당하는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은유 표현은 이 두 해석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은유 해석에 관련되는 요소는 비정상성만이 아니다. 은유 해석에 기여하는 그 외의 요소로서는 지금까지 살펴 온 매개체와 화제를 들 수 있고, 여기서 설명되어야 할 실제 결합어의 실제 지시물(이후 실지시물이라 한다)과 정상결합어의 정상적 지시물(이후 정상적 지시물이라 한다)을 들 수 있다. 정상적 지시물은 매개체 구문을 뜻하고 있다.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일곱 가지 경우의 해석 경로가 생긴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경로 1은 매개체+화제의 경우이다.('+의 기호는 연접을 의미한다). 경로 2는 매개체+화제+실지시물의 경우이다. 경로 3은 매개체+화제+실지시물의 경우로서 경로 2와 같으나, 그 차이점은 경로 2는 비정상적 지시로 말미암은 은유인데 반하여, 경로 3은 비정상적 지시와 비정상적 결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은유라는 점이다. 경로 4는 매개체+화제+실지시물의 경우로서 경로 3과 동일하나, 그 차이는 경로 3은 화제와 실지시물이 동일한데 반해, 경로 4는 이들이 서로 상이하여 여기서의 화제는 평범한 화제가 아니라 근거로서의 화제를 가리킨다. 경로 5는 매개체+화제+실지시물+정상적 지시물의 경우이다. 즉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관련되고 있다. 경로 6은 매개체+화제+실지시물+정상적 지시물의 경우로서 경로 5와 유사하다. 다만 경로 6의 화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경로 5의 화제는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경로 7은 실지시물+정상적 지시물의 경우로서 매개체와 화제가 없음이 특이하며 비정상적 결합에만 국한되는 은유 해석 경로이다.

앞서 논의된 (23)의 예가 경로 1에 해당하는 예이다. *suitcase*는 매개체이고 이 매개체는 화제인 *boulder*를 비정상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은유를 일으키고 있다.

다음 예문 (24)는 경로 2에 해당되는 은유이다.

(65) There is a cathedral under the construction.

The building was a **barn**.(Goatly 1997: 112)

밑줄 친 *the building*은 화제이고, *barn*은 매개체이며, 실지시물은 *cathedral*이다. 이때 화제는 실지시물과 동일하게 *cathedral*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 은유는 지시에만 국한된 비정상성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다.

다음은 경로 3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유이다:

(66) The sardine tin of life (Goatly 1997: 112)

화제어는 *life*이고, 매개체는 *sardine tin*이며, 실지시물은 *life*이다. 화제와 실지시물이 동일한 점은 경로 2와 같으나 이 은유는 지시와 결합 모두에 비정상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경로 2와 다르다.

다음은 경로 4로 해석할 수 있는 은유의 예이다:

(67) John is a pig.

매개체는 *pig*이고 실지시물은 *John*이며, 화제는 탐욕(*greedy*)으로서 매개체와 실지시물 사이의 유사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은유는 관련되는 요소가 세 가지이며, 지시와 결합 모두가 비정상적이므로 발생한 은유이다. 실지시물과 화제가 다른 점이 경로 3과 다르다.

다음 예문 (27)은 경로 5에 해당되는 은유의 예이다.

(68) the naked shingles of the world (Goatly 1997: 114)

매개체는 *naked*이며, 실지시물은 *shingles*이고, 정상적 지시물은 *body*이다. 따라서 유추된 화제는 *uncovered*이다. 이 은유는 매개체 *naked*가 화제인 *uncovered*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은유는 관련되는 요소가 네 가지로서, 지시와 결합 모두가 비정상적이어서 발생한 은유이다.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다음 예문 (28)은 경로 6에 해당하는 은유의 예이다.

(69) The air was thick.(Goatly 1997: 115)

매개체는 *thick*이고, 실지시물은 *air*이며, 정상적 지시물은 *solid/liquid*이다. 그러나 화제에 해당하는 낱말이 영어에 없다. 어쨌든 유추관계에서 화제에 해당하는 말이 없으므로 매개체 *thick*를 사용한 은유를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이 은유도 지시와 결합 모두가 비정상성을 띠어서 발생한 것이다.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유추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임은 위에서 언급되었다.

다음 예문 (29)은 경로 7에 해당하는 은유의 예이다.

(70) Her son has been damaged in a crash.(Goatly 1997: 115)

이 은유에서 실지시물은 *son*이고, 정상적 지시물은 구체물(object)이고 매개체나 화제가 없다. 따라서 결합의 비정상에만 국한해서 발생한 은유표현이다. 원래, *damage*동사는 목적어의 결합으로서는 구체물을 요구하는 동사이다. 여기서의 사람은 *son*이 비정상적으로 결합을 이룬 셈이다.

지금까지 은유를 해석할 때 관련되는 요소로서 주요 네 가지 요소 즉 화제, 매개체, 실지시물, 그리고 정상적 지시물을 들어 Goatly(1977: 112)의 일곱가지 경로에 따른 여러 가지 은유의 예를 논의하였다. 온전한 경로 파악을 위해서는 은유는 비정상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며 여기에 추가하여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유추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함도 논의하였다. 다음 장에서 다양한 은유 표현들을 위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 보기로 한다.

5. 은유해석의 실제

앞 장에서 우리는 은유해석 방법을 논의하였다. 은유해석의 첫 단계는 비정상성이 지시에 관련된 것인지, 결합에 관련된 것인지를 밝히고 다음 단계로는 네 가지 요소를 각각 확인하여 해석 경로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유사성에 근거한 것인지, 유추에 근거한 것인지 가려내면 된다. 이 장에서는 은유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은유를 해석하고 각 은유의 해석 경로를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부차적으로 과연 다양한 은유 표현들이 7가지 은유 해석 경로만으로 모두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30)의 은유 표현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71) The beach was a *thin bowstave*. (Goatly 1997: 121)

예문 (30)의 은유 해석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T-term과 V-term, 그리고 G-term을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다.

T-term: The beach
 V-term: a bowstave
 G-term: thin [and long]

실지시물은 *beach*이고, 매개어는 *bowstave*이며, 근거는 두 사물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thin*이다. 따라서 경로 4로 해석되어지는 은유이다. 이 은유 표현은 해변이 활대처럼 가늘고 길게 펼쳐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72) Life is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Goatly 1997: 9)

예문 (31)는 근거를 밝혀 줌으로서 화제어와 매개어의 의미 해석이 순쉬워 진다.

T-term: Life
 V-term: a box of chocolates
 G-term: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이 은유 표현은 인생이란 마치 상자 속의 초코렛 처럼 어떤 것이 손에 잡힐지 예측할 수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화제는 *life*이고, 실지시물도 *life*이다. 매개어는 *a box of chocolates*이고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로서 경로 3의 은유해석이 가능하다.

(73) The kidneys are the body's **sewers**.(Goatly 1997: 35)

예문 (32)에서 실지시물과 화제어가 일치하는 은유 표현으로서 매개어는 지시적 또는 결합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T-term: kidneys

V-term: sewers

G-term : [eliminate waste]

우리 몸에서 신장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은유표현의 예이다. 매개어로 *sewers*를 사용했고, 실지시물은 *kidneys*, 화제어는 노폐물 제거이므로 이 은유표현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지시와 결합이 비정상인 경로 4로 해석되는 은유이다.

(74) the gills kneading quietly(Hughes, T:1972)

예문 (33)는 "Wind"라는 시의 일부이다. 대단히 난해한 은유로서 해석 관련 요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왜냐하면 *gills*가 '아가미', '떡밀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시와 결합이 모두 비정상적이다.

T-term: [Turkeys] [having] [gills]
(떡밀살)

V-term: [Man] kneading [bread, pottery]
(빚어만들다)

위 예문은 닭이나 칠면조의 떡밀살이 묘사되고 있는 은유표현으로 매개어는 *kneading*이고, 정상적 지시물은 *bread, pottery*이며, 실지시물은 *gills*이다. 결국 *kneading*의 의미는 화제어인 *having*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은유표현은 유추 관계에 의한 경로 5로 해석될 수 있다.

(75) The human race is an amoeba: perhaps waiting to evolve, or not. (Goatly 1997: 121)

예문 (34)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T-term: human race

V-term: amoeba

G-term: [waiting to evolve]

인류가 마치 진화를 바라는 아메바와 같다는 은유표현으로서 매개어는 *amoeba*이고 화제는 *human race*이며, 실지시물도 *human race*이다. 유사성에 의한 근거는 '진화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이 은유는 지시와 결합의 비정상적으로 생긴 것으로 경로 3으로 해석이 된다.

(76) The yacht ploughed the waves. (Goatly 1997: 123)

예문 (35)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T-term: The yacht [moved through] the waves.
 V-term: [The plough] ploughed [the field].

위 예문 (35)은 *yacht*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쟁기가 밭을 쟁기질하며 나아가는 모습과 유추하고 그 유사성을 근거로 한 표현이다. 유사성은 두 사물이 모두 유선형이고, 광활한 펼쳐짐을 연상할 수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유추관계는 쟁기질이나 요트가 지그재그 움직임에 관계가 있고, 그들 움직임의 흔적인 물결이나 밭고랑의 관계를 유추한다. 여기서 매개어는 *ploughed*이고, 화제는 *moved through*이다. 실지시물은 *waves*며 정상적 지시물은 *field*이다. 경로 5로 해석되는 은유이다.

(77) as if the algebra was **glue** they were stuck in. (Golding 1979: 133)

예문 (36)에서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서 은유표현의 해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T-term: algebra
 V-term: glue
 G-term: they were stuck in

대수학은 아교와 같이 그들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은유표현으로 *glue*는 매개어로 쓰였고 화제는 *algebra*가 되며, 실지시물 또한 *algebra*이다. 유사성의 근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꼼짝 달싹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이다. 경로 3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은유표현이다.

(78) The room is a **pigsty**. (Sperber & Wilson 1986: 236)

예문 (37)은 지시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은유인데 다음 도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T-term: room
 V-term: pigsty
 G-term: [messy, dirty]

예문 (37)은 *room*이 실지시물이고 *pigsty*를 매개어로 사용하여 방을 돼지 우리로 나타냄으로써 더럽고 지저분함의 화제를 의미하고 있다. 두 사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경로 4의 해석이 가능한 은유이다.

(79) My job is a **jail**. (Glucksberg & Keysar 1990: 7)

예문 (38)를 다음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T-term: My job
 V-term: a jail
 G-term: [locked in]

예문 (38)은 *job*을 실지시물로 사용하고 *jail*을 매개어로 써서 직업의 행동제약을 감옥의 현저한 특성을 이용해 나타낸 것이다. 직업은 사회의 구성원이 자아 실천의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직업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부정적인 측면은 반복성이 있어서 지루해지기 쉽고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실수가 발생하면 질책이 따르기도 한다. 감옥은 죄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사회규범이 만든 장소이다. 원치 않게 갇혀있는 공간으로, 울타리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는 행동의 제약이 있다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지시물로 쓰인 *job*은 또한 화제가 된다. 즉 지시에 국한된 비정상 표현이다. 따라서 경로 2로 해석된다.

(80) The car **drank** the gasoline.(Wilks 1975: 343)

예문 (39)는 은유 해석 요소 네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추 관계를 근거로 한 은유 표현의 예이다.

T-term: The car	[use up/consume]	the gasoline
V-term: [animate]	drank	[liquid]

매개어는 *drank*이고 실지시물은 *car*이며, 그 정상적 지시물은 *liquid*이다. 그리고 화제는 *use up/consume*이다. 그러므로 이 은유 표현은 경로 5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은유는 자동차가 운행될 때 연료소비가 과도함을 뜻하는 말로 *drank*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은유의 실제분석을 통해 다양한 은유 표현을 해석해 보았다. 해석과정의 순서로서 먼저 지시와 결합의 비정상성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을 가려내고, 다음으로 은유 해석에 관련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의 여부를 따지며, 마지막으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일곱 가지 경로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 은유들이 지시와 결합이 동시에 비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폭넓은 은유의 예를 수집하여 일곱 경로의 틀로 분석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언어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은유 표현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다양한 은유가 일곱가지 경로로 해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마무리

언어 전반에 걸쳐 분포되고 있는 은유의 이해는 언어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은유의 이해를 위해 그 정의를 살펴 보았다. 정의에 의하면, 은유 발생은 담화 표현이 구체물, 개념, 혹은 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와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비정상성은 은유 이해의 핵심이다. 비정상성은

구체적으로 화제어와 매개어가 관련되고 있는 데, 매개어의 기능에 따라 은유의 종류가 구분된다.

한편, 은유는 유사성이나 유추(analogy)를 근거로 해서 네 가지 과정, 즉 특수에서 보편으로, 보편에서 특수로, 특수에서 특수로, 또는 유추를 통한 바깥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은유는 보통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해주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며 또 주어진 대상에 대해 선명한 시각적 인상을 남겨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은유는 알려진 사실을 이용하여 알지 못하거나 분명치 못한 사실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은유를 해석함에 있어 관련되는 전통적인 중요 이론들은 세 가지가 있다. 대치이론, 상호작용이론, 그리고 비교이론이다. 각 이론의 관점 내용을 요약 설명하며 이론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본 논문이 비교이론을 채택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 이유는 대치이론의 미흡한 점과 상호작용 이론의 약점이 동시에 보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이론의 핵심은 화제어와 매개어가 유사성이나 유추를 통하여 비교된다는 것이므로 유사성의 정의와 유추개념을 살펴보고, 그리하여 비교이론을 근거로 해서 은유해석의 일곱 경로를 논의하였다. 일곱 경로는 비정상성의 여부와 유사성 및 유추의 관련성 여부와 함께 네 가지 관련요소의 결합에 따라 생긴다. 네 가지 관련요소는 화제어, 매개어, 실지시물, 그리고 정상적 지시물이다. 은유에 따라 이들 중 관련되는 요소가 다르다. 하나의 은유는 두가지 요소에만 관련될 수도 있고, 세 가지 요소에 관련될 수도 있다. 또는 네 가지 요소 모두에 관련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은유의 해석경로가 결정된다.

이상의 일곱 경로에 따라 여러 가지 은유를 실제로 해석하였다. 해석 방법은 1차로 지시와 결합 중 어느 것에서 비정상성이 발생한 것인지와 2차로 해석 관련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개입되는지 그리고 3차로 은유를 성립시켜 주는 것이 유사성인지 유추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로 1부터 경로 4까지는 유사성과 관련이 있고, 경로 5부터 경로 7까지는 유추관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은유의 상당수가 경로 4와 경로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일곱 가지 은유해석 경로의 적용은 다양한 종류의 은유 표현을 해석해 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확인해 본 셈이다. 이 적용으로 화자가 의도하는 은유의 의미, 즉 화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교이론에 근거하여 은유해석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대치이론이나 상호작용이론으로 은유해석을 하는 것 보다 은유해석을 훨씬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은유를 수집해서 해석해 봄으로써 이 은유 해석방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원. 1999. "개념적 은유에 관한 연구". 「언어연구」 제15권 제1호. 3-23.
 김창익. 1999. "은유와 관련성 이론". 「호서대학교 인문논총」 제18집.

- 이익환. 1998. 「의미론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 정원용. 1996. 「은유와 환유」. 서울: 신지서원.
- 조혜경. 1999. "은유의 언어학적 분석". 「호서영어영문학」89-103.
- 이진옥. 2000. 「영어 은유표현의 개념구조」.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승욱. 1989. 「영어은유의 개념론적 해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lack, M. 1962. 'Metaphor', in J. Margolis(ed.), *Philosophy Looks at the Arts*, New York: Temple University Press, 218-35.
- Black, M. 1979. 'More about metaphors', in A. Ortony(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3.
- Goatly, A. P. 1983. 'Metaphor in the novels of William Golding',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 Goatly, A. P. 1987. 'Interrelations of metaphors in Golding's novels: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metaphoric interplay', *Language and Style* 20 (2): 125-44.
- Goatly, A. P. 1990. 'A stylistic analysis of A. E. Housman's "On Wenlock Edge"', *Language and Style* 23 (4): 383-408.
- Goatly, A. P. 1993. 'Species of metaphor in varieties of English', in M. Ghadessy(ed.), *Register Analysis: Theory and Practice*, London: Pinter, 110-48.
- Goatly, A. P. 1994. 'Register and the redemption of relevance theory: the case of metaphor', *Pragmatics* 4 (2): 139-81.
- Goatly, A. P. 1997. *The language of Metaphors, USA and Canada.*, 1-136
- Golding, W. 1954. *Lord of the Flies*, London: Faber.
- Golding, W. 1961. *Free Fall*, London: Faber.
- Golding, W. 1979. *Darkness Visible*, London: Faber.
- Henle, P. 1958. 'Metaphor', in Mark Johnson (1981), 83-104.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G. A. 1979. 'Images and Models, Similes and Metaphors', in Andrew Ortony (1979a). 202-50.
- Mooij, J. J. A. 1976. *A Study of Metaphor*, Amsterdam: North Holland.

- Ortony, A.(ed.) 1993. *Metaphor and Thought*,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I. A. 1936. *The Philosophy of Rhetoric*. in Mark Johnson (1981). 48-62.
- Searle, J. 1993. 'Metaphor', in A. Ortony(ed.), *Metaphor and Thought*,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3-111.
- Sperber, D. &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Steen, G. 1994. *Understanding Metaphor in Literature*, Harlow: Longman.
- Tversky, A. 1977. 'Features of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84, 327-52.
- Way, E. C. 1991.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Metaphor: Studies in Cognitive Science* 7,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